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504 호 현대불교
2024년 10월 23일(음 9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모든 마음들은 근본에 의해서 하나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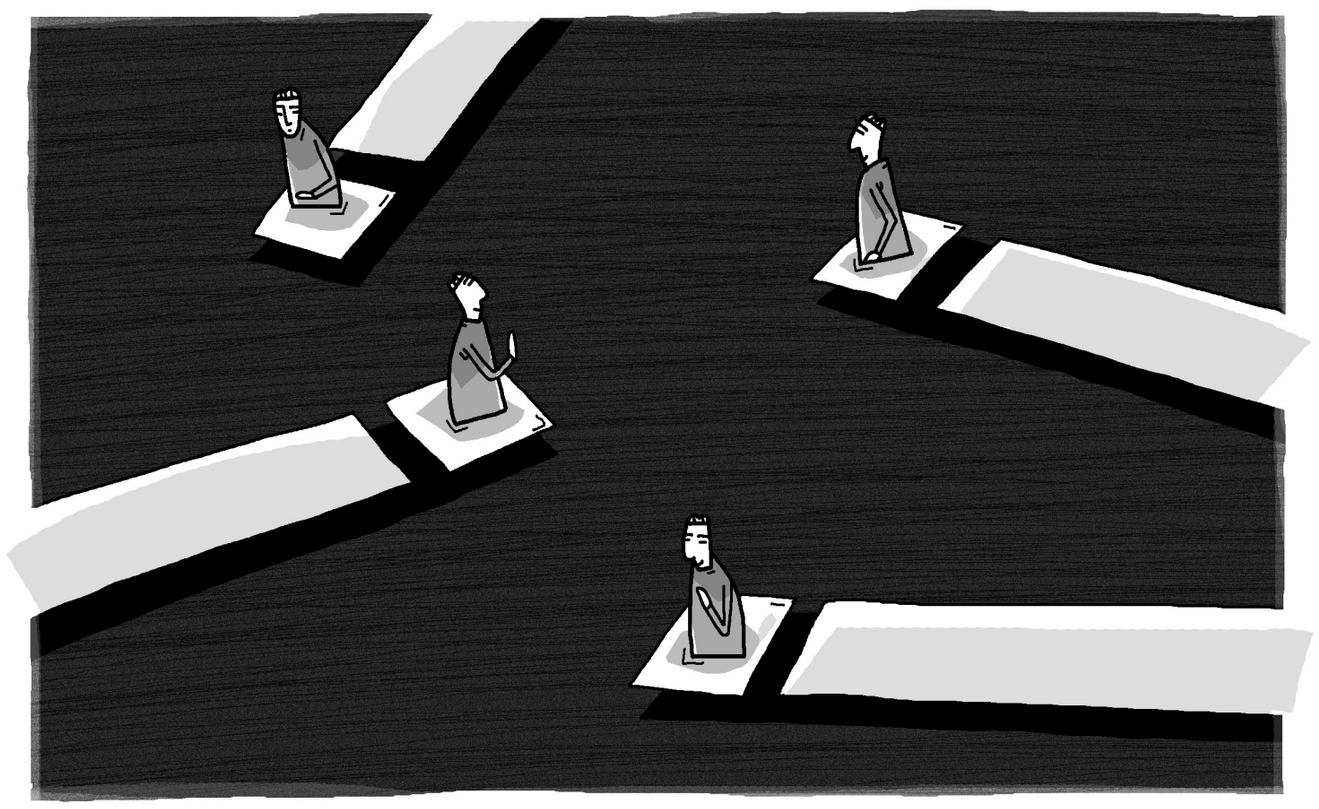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께서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들어서만 꼭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듣고도 아셔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이 세상 이치를 다 적으리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세상을 볼 때에, 말없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차원에 따라서,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너희 마음대로 가지고 살다가 다 놓고, 네 몸뚱이까지도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몽땅 다 놓고 가되,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인과가 되고 유전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고 인생에서 선덕을 잘 쌓고, 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으뜸가는 공부니라.' 하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개미 하나, 풀 한 포기도 전부 여러분의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꼭 말을 해 줘야만 알겠습니까? 허공은 허공대로 '자유스럽게, 티 하나 걸리지 않고 흘러 돌아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같이 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은 물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집으로서 만생을 이끌고 나가는 물은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 없이, 어떠한 차원도 없이 흘러갑니다. 꼭 말을 해 줘야 압니까? 그것도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스승.

그뿐이 아니라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나무들도 바람 부는 대로 바람에 날려서 아무리 뿌리가 뽑힌다 하더라도 말없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통하다고 원망을 하거나, '바람이 왜 부느냐. 왜 뿌리가 뽑히게 하느냐. 왜 못살게 하느냐. 왜 눈이 오느냐. 왜 우박이 오느냐. 그래서 왜 나한테 타격을 주느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냐.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처럼 말없이 살라'고 말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들어 놓고는 겨울에는 그냥 앙당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히고 뿌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역시 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게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나 있겠습니까?

개미들이나 짐승들을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을 까 놓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을 낳고 지키고 이끌어 주고 똑바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칠까 봐 걱정이고 말입니다. 어떻게 살림살이가 다릅니까? 모습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지마는 그 살림살이의 근본은 다 똑같은 겁니다. 개미들도 그렇고 말입니다. 얕잡아 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만생이 다 이렇게 나와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다 자식이다, 이런 데 연연하고 애착을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억겁 광년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도둑질은 안 했겠습니까? 생명을 잡아먹지는 않았겠습니까? 나쁜 짓은 안 했겠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겠습니까? 병신은 안 됐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과거에 모자랄 때 내 모습으로 보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과거에 잘못한 내 모습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속에서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기가 없어지고 유하게 부드럽게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둘 아니게 보라는 거죠.

부모 자식이다 할지라도 한 철 부모 자식이지 그 한 철이 지나면 그대로 뿔뿔이 몸도 다 놓고 갑니다, 제가끔. 원점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또 생(生)해서,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올 때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果)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또 출현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되죠. 이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넓게 생각을 할 때 내 부모 아닌 게 어딨고 내 자식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찰나에 인생이 가고, 한 찰나에 인생이 생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요 한 철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여서 놀러 갔다고 합시다. 모여서 놀러 갈 때는 한 식구입니다. 그리고 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즐거웁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헤어집니다. 뿔뿔이 자기 갈 데로 다 헤어지고 그 자리조차도 내놓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섭류도 다 그렇단 말입니다. 저 혹성이나 핼리 혜성이나 또는 어떠한 별성이나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섭류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래로 쭉 내려다보세요.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토끼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수명이 인간보다 짧고 그렇지만, 수명이 아주 긴 것도 있고, 수명이 아주 짧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로 길고 짧고 길고 짧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열 달이 돼야만 이 낳지만, 6개월 만에 낳는 것도 있고, 석 달 만에 낳는 것도 있고, 몇 주일 만에 낳는 것도 있고 그거는 여러 층으로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자면 기술자끼리 모이고, 농사꾼은 농사꾼끼리 모이고, 배를 타는 사람은 배를 타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들 모여서 살듯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다 놓아 버리게도 하는 그런 장본인인 주인공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으며,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수억겁 전부터 생기게 해서 이렇게 인간까지 이끌어 왔는데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공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스님들의 고깃덩어리인 몸뚱이를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선 쑥 내밀었단 말입니다.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보이시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내 중심입니다, 중심! 팔뚝! 중

☞ A28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